



## 가독

## 반성 없는 역사는 반복되기에

박지영 율리어나  
장림성당

- 
- 

2022년 10월 29일 늦은 밤. 사망자 수가 10명, 40명, 70명, 110명, ...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부상자도 아니고 사망자 수가 그럴 수 있나. 이게 무슨 일이지?

10월 30일 아침,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부터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온 사방 뉴스로 가득 찼다. 나는 상세한 기사를 보며 마음이 아팠고 동시에 무기력했다. 왜냐하면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왔던 코로나 극복에 대한 많은 기도문이. 그래서 나는 기도에 담고 싶은 말을 적어보았다. 혹시 단어 하나조차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까 봐 끊임없이 고쳤다. 부디 나의 마음이 올바르게 전달되기를 바라며 진심을 담았다. 안타까운 희생자와 부상자, 그들을 사랑하는 이들, 그리고 구조대와 의료진을 위해 기도를 간절히 봉헌하였다. "부디 당신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어 주십시오." (열왕기상 8,30)

그러나 일부 참사에 대한 왜곡된 시선도 있었다.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헬러원이라는 인과관계가 무관한 자극적인 발언이 난무했다. 그렇다면 같은 날 이태원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린 도쿄, 뉴욕, 유럽 등 주요 도시에서는 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엄청난 인파로 북적였던 모든 국내 축제와 행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태원 참사의 사고 위험은 정말로 예방할 수 없었던 건지 복잡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

2014년 4월 16일 이른 아침. 사고 소식이 들렸다. 오후 1시경 탑승자 476명 중 368명을 구조 완료했다고 했다. 그러나 오후 4시경 368명이 아닌 164명을 구조했다는 정정 기사를 발표했다. '이건 무슨 말이지?' 추억이 비극이 되어서는 안 되었던 날이 있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짜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

### 이태원 사상자들을 위한 기도문

위로이신 주님, 이르게 세상을 떠난 그들을 위로하여 주소서  
그들의 안타까움과 슬픔을 온전히 받아주소서  
또한 부상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에게 기적과 축복을 내려 주소서  
특히 그들을 사랑했던 이들, 슬퍼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주소서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 모두가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당신께 간구하며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이달의 기도 지향 : 우리 안에 공감의 능력이 무너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 우리는 아웃사이더가 되어야 합니다

조현우 블라시오 신부 토현성당 |

우리 교회는 해마다 2월 11일을 ‘세계 병자의 날’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날은 프랑스 루르드의 성모님 발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1858년 2월 11일부터 루르드에 여러 차례 나타나셨는데, 당시 교황이셨던 성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이 1992년부터 해마다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인 발현 첫날을 ‘세계 병자의 날’로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날 교회는 세상 모든 병자들의 빠른 쾌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병자가 될 수 있고, 지금 병자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예전에 병을 앓고 고통받았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가장 괴롭혀 온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는 늘 질병과 고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병을 앓으면서 우리 자신의 무능과 한계, 그리고 유한성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또 모든 질병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생각하게 만듭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500항 참조) 질병은 우리를 번뇌로 이끌기도 하고, 자신 안에 도피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며, 때로는 하느님께 대한 실망과 원망, 반항으로까지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질병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여 본질적인 것을 향해 나아가도록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병은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을 찾게 하고, 다시 하느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 주기도 합니다.(CCC 1501항 참조)

구약성경을 보면 인간은 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먼저 하느님께 자신의 병에 대해 하소연을 합니다.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의 죄악들이 제 머리 위로 넘쳐흐르고 무거운 짐처럼 저에게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저의 미련함 때문에 제 상처는 냄새를 피우며 썩어 갑니다. 저는 더없이 꺾이고 무너져 온종일 슬피 떠돌아다닙니다. 저의 허리는 염증으로 가득하고 저의 살은 성한 데 없습니다. 저는 쇠약해지고 더없이 으스러져 끄떡 없는 제 심장에서 신음 소리 흘러나옵니다. 주님, 당신 앞에 저의 소원 펼쳐져 있고 저의 탄식 당신께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시편 28,5-10)


그리고 나서 인간은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느님께 치유를 애원합니다.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는 쇠약한 몸입니다. 저를 고쳐 주소서, 주님, 제 뼈들이 떨고 있습니다. 제 영혼이 몹시도 떨고 있습니다. 돌아오소서, 주님, 제 목숨을 건져주소서. 당신의 자애로 저를 구원주소서.”(시편 6,3-5) 이렇게 해서 질병은 회개의 길이 되고 하느님의 용서는 치유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질병이 신비한 방식으로 죄와 악과 관련되어 있으며, 율법에 따라 하느님께 충실하면 생명을 돌려받는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탈출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었지요.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말을 잘 듣고, 주님의 눈에 옳은 일을 하며, 그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정을 지키면, 이집트인들에게 내린 어떤 질

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낮게 하는 주님이다.”(탈출 15,26)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는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병자들도 있지만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병자들도 있지요. 예수님께서서는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질병과 영혼의 고통 및 상처까지 모두 고쳐 주려고 오셨지요. 쉽게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의 범주 안에는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이들 또한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가난한 이들이지요. 우리 공동체의 주변부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흔히 말하는 아웃사이드에 자리 잡고 있는 ‘아싸’ 아웃사이드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늘 아웃사이드들에게 다가가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돌보아 주었다.(마태 25,36)”라고 말씀하시며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연민으로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지 하셨습니다.

하느님이신 분께서 육신을 취하시어 아기의 얼굴로 이 땅에 오신지 벌써 두 달이 넘었습니다. 저는 본당에서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자주 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어떤 모습인가요? 사랑스럽나요? 1차적으로는 못생겼지요. 눈, 코, 입만 달려있고,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일수록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지요. 다시 말해 열린 얼굴이란 말입니다. 이 열린 얼굴에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저기 뉴욕에 사는 메리도 있고 남미에 사는 산체스도 있다고... 예수님의 얼굴은 열린 얼굴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의 얼굴 안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합시다.” 간추린 사회교리 144항도 “하느님의 영광이 어느 정도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비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느님 앞에 지닌 존엄성은 인간이 다른 사람 앞에서 갖는 존엄성의 기초가 된다.”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훗날 하느님 앞에 섰을 때, 하느님께서 는 딱 한 가지를 물어보실 겁니다. 다양한 형태의 아웃사이드들의 얼굴에서 내 얼굴을 발견하고 예수님 대하듯 대해주었는지 말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들의 얼굴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끊이지 않는 성탄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느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겠지요. 하느님 나라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돈과 권력이 많은 사람들, 우리 각자에게 이득을 주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나라로 만들지 맙시다. 하느님 나라를 이해관계로 바라보고 나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 이득을 주지 않는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는 곳으로 만들지 맙시다. 하느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연대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곳에서 펼쳐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 지금, 우리 언론의 자리

## 10.29 이태원 참사 보도를 중심으로

강유정 교수 강남대 한영문화콘텐츠학과

10.29참사 이후 관련 뉴스들을 따라가보니 언론이 했던 역할과 하지 않았던 책임 방기가 언론의 부재라 할 만하다. 기사와 논평을 통해 몇 가지 맥락을 짚어 보겠다.

### 5.18과 오버랩되는 10.29 질문하지 않은 언론

미디어 활동을 하면서 세 번의 프로그램 폐지를 맞았다. 첫 번째가 ‘저널리즘 토크쇼’ 언론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으로 타사는 물론 내부 비판도 많이 해 팀 지원 기사가 없어서 제작이 힘들어졌다. 인터뷰 프로그램 ‘국회의원 유정다방’은 대선 결과와 함께 사라졌고 마지막 회를 가게 된 ‘뉴스공장’은 조례를 바꾸는 조례를 만들어 프로그램을 없앴다. ‘토크쇼’ 당시 수신료 거부 댓글이 무서웠지만 그 덕분에 정권과 관계없이 KBS가 공영방송으로 유지될 수 있고 TBS는 서울시 출원 재정에 의존하는 탓에 허망한 일이 생겼다. 수신료의 가치를 알아야 하고 지배 구조에 우리 의사가 반영되도록 법제화에 힘을 보태야 한다.

최근에 ‘5.18 민주항쟁’을 교과서에서 빼려던 시도가 있었다. 역사적인 합의가 끝났는데 ‘북 간첩설’이 왜 자꾸 나올까.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기록이 남아 있어서다. 10.29 참사 기록들도 만만히 넘어가서는 ‘미친 소리’들이 30년 후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른다. 그들은 기사를 사료나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다.

1980년 5.18과 지금이 오버랩된다. 기자들을 광주로 데려가면서 33개 언론사에 820만원이라는 거액을 취재비로 차등 지원했고 전두환이 직접 ‘5.18사태’라는 말을 퍼트렸다. 언론은 직접 보고 취재해서 쓰는 대신 아무런 판단 없이 받아썼다. 10.29 때도 ‘사망자’라는 표현을 그대로 썼다. ‘광주 사태’의 따옴표와 ‘이태원 사망자’의 따옴표는 질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출발이 같다.

### 여전한 받아쓰기. 심기 경호 기사에 시민 물자각으로 몰아

사회적 참사라고 얘기해야 하는데 사회적 애도 기간을 선포하니 다 입을 닫았다. 사고 다음 날, 관계 공무원을 1대 1로 매칭시켜 지원하겠다고 보도했다. 재난이 생기면 모여서 보듬어야 되는데 1대1 매칭은 고립처럼 느껴져 의아했지만 개념을 설명한 매체는 없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장례비 최대 1천500만원 지원’이라는 정부 보도자료가 기사화되면서 돈 문제가 튀어나왔다. 또 윤 대통령의 행보를 거의 초 단위로 스팟과 속보로 보여주는 심기 경호 기사가 채



위였고 조선일보는 시민의 물지각과 제도 미비를 지적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조·중·동의 야망은 미래 권력 창출. 2020년 10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선일보 사장을 만났다는 얘기가 돌았고 11월엔 윤 총장 대망론이 기사화됐다. 포털이 더 많은 힘을 갖게 된 지금도 권력 창출이 된다는 걸 대선에서 보여줬다.

### 세월호 역효과에 갇힌 사이 외신에선 이름과 사연까지 보도

11월 1일쯤 정쟁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는 식의 지시 같은 메시지를 내놨고 대통령실 촬영 전담이 찍은 사진을 배포했다. 다른 촬영이 허용되지 않아 전 언론이 이 사진으로 도배됐다. 연출된 사진만 보도록 유도되고 있는데도 언론은 가만히 있었고 질문해선 안 되는 것



처럼 됐다. 세월호 역효과였다. 세월호 때는 너무 많은 노출을 감행해 취재원 보호라는 기본 개념도 없는 선정적인 기사가 많았다. 이게 트라우마가 돼 의식 있는 기자들이 자기 검열을 하는 사이 반대쪽에선 다른 대응들을 뿌려댔고 갈라치기로 불특정 다수 시민을 등장시켰다. 서구권에선 취재원의 이름과 나이를 밝혀야만 기사가 성립되지만 우리 포털이나 조선일보 등은 갈라치기할 때 구체적 신원 없이 필요한 말만 따옴표로 쓴다.

그런데 뉴욕타임즈는 ‘절대적으로 피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고 희생자 이름과 인스타그램, 사연까지 실었다. 참사는 피할 수 있었나? 초동대응이 어땠나? 다친 이들에게 어떻게 대응했나? 3단계로 외신은 1번을 계속 묻는데 한국에선 2, 3번만 다뤘다. BBC도 VICTIM(희생자)라고 썼다. 외신들의 본부가 한국에 있어 이태원에 직접

가서 본 덕분에 직관 후기 작성이 가능했던 것. 그러자 “선동한다”는 등 말도 안 되는 기사가 뒤따랐다. 수십 년 뒤 누군가 자기들의 역사를 만든다고 근거로 삼을지도 모른다.

### 의견 없이 기계적 중립에 빠진 언론, 기본 원칙 상기해야

한국 언론 간담회 요구를 거절했는데도 문제 삼지 않았다. 간담회 거절을 공식 기록으로 남겨야 했고 희생자 명단에 대해서도 심층 보도를 해야 했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공론화까지라도 했어야 했다. 입 닫고 패륜이라고 따라가지 말고 유가족에게 정중하게 다가가서 생각을 물었어야 했다.

중립병도 고질적이다. 거짓이나 조작이 문젠데 자기 의견을 내는 게 잘못이라고 가르친 탓에 기계적 중립에 대한 요구가 심해지고 있다.

‘세상에 하나뿐인 158’이라는 한겨레신문 기사는 그 사이 159가 됐다. 현재진행형이다. 159명의 이름값을 찾아 제대로 된 가치를 부여하기 전까지는 159개의 우주가 사라진 사건으로 기억해야 한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태도와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언론이 요구해야 하고 권력을 감시해야 한다. 언론은 겁먹지 말아야 된다. 지난 정권에서 언론은 모두 자기 의견이 있었으나 지금은 어느 신문을 보나 별 차이가 없는 위축 효과를 노리고 있다.

언론중재위도 역할을 못하고 기자 개인 기소, 방송법 내 편집권 침해 등 전례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 위축되는 대신 △진실 △최우선 충성 대상은 시민 △사실 확인 △독립성 △독립적 감시자로 봉사라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상기해야 한다. 🌿

2023년 1월 9일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의 주제강의를 김아영 소피아 정평위원이 요약하였습니다.

## 이주민과 난민과 함께 미래 건설하기

유연창 베드로 신부 이태리 연수

Salve! 저는 이탈리아 피렌체 근교에 있는 Lopiano에서 연수 중입니다. 로피아노는 포콜라레 운동(1940년대 이탈리아에서 키아라 루빅이 시작한 일치의 영성 운동)의 이상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소도시입니다. 포콜라레 운동의 다양한 양성기관이 같이 있기에 57개국에서 모인 968명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이곳에는 포콜라레 운동의 영성을 배우려고 모인 이들과 소도시 운영을 위해 활동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이주민과 난민도 있습니다. 저의 작은 그릇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고통도 하느님께서 주신 숙제와 선물로 받아들이고 아픔을 넘어서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국법을 어기고 개종을 선택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란에서 온 젊은이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군부 독재의 현장을 증언하며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는 미안마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피해 친척이 있는 이탈리아까지 피난 온 우크라이나 자매가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 IS에 협력하지 않으려고 재산과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와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기쁘게 살아가는 시리아 의사가 죽어 있습니다. 가족을 내전으로 잃어버리고 간신히 목숨만 건져 이탈리아로 온 시리아 젊은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로피아노에는 새로운 하느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난민들이 있습니다.

“이주민과 난민과 함께 미래 건설하기는 그들이 저마다 하느님 나라의 건설 과정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깨닫고 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 계획은 본질적으로 모든

이를 포함하고 실존적 변방에 사는 이들을 우선시 합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수많은 이주민과 난민, 실향민, 인신매매의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라는 그들과 함께 건설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없다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힘없는 이들을 포용하는 것은 하느님 나라에서 온전한 시민이 되는 필수 조건입니다.”(프란치스코 교황의 2022년 제108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에서)

사실 저 역시 로피아노를 벗어나면 이주민입니다. 가게나 식당, 시장이나 시내로 나가면 동네 사람들은 중국 아저씨 한 명 왔다고 생각하겠지요.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루카 6,31) 이주민과 난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다른 동네로 이사만 가도 우리 역시 한동안은 이주민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대로 가장 힘없는 이주민과 난민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때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서 온전한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도 저는 이주민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겠지요. 저를 기억하시며 새롭게 마주치는 낯선 형제들을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2-23년도 Gen학교 젊은이들

#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남자 오베.

『오베라는 남자』, 감독 하네스 홀름

전동목 안드레아 신부 일본 선교


스웨덴의 한 작은 마을에 오베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깐깐한 성격에 원리원칙주의자인 그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조금 비뚤어진 표지판도 창고 앞에 세워놓은 자전거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 놓아야 직성이 풀립니다. 자기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으면 누구든 찾아가서 따지고 소리를 지르며, 심술궂은 표정으로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딱 한 곳, 그가 한없이 약해지고 착해지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아내의 무덤 앞입니다.

사실 오베는 마음속에 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6개월 전 유일한 가족이었던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43년간 성실히 다닌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당한 그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였던 것이죠. 결국 그는 자살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우습게도 죽는 일조차 그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을 매려고 의자 위에 올라가면, 주차를 제대로 못하는 이웃이 거슬려서 못 죽고, 자동차 안에서 가스를 피우면 이웃이 차 문을 두드려서 못 죽고, 철로에 떨어져 죽으려고 하면 먼저 떨어진 사람을 구하느라 못 죽고, 총으로 죽으려고 하면 죽은 아내의 제자가 도와달라고 찾아와서 못 죽고, 모처럼 죽기 좋은 날엔 목을 맨 노끈이 끊어져서 못 죽고….

결국 죽는 것도 쉽지 않다며 자포자기한 오베는 자질구레하고 귀찮은 이웃들의 요구를 하나둘씩 들어주기 시작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웃과 소통하는 작은 행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오베의 대가 없는 선행은 이웃의 보답으로 돌아오고 늘 혼자였던 오베의 곁에는 옛 친구, 마을 청년들, 이웃집 꼬마, 반려 고양이가까지 친구들로 가득하게 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야 사는 것 같구나’라는 말을 하는 오베는 얼마 가지 않아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자기를 좋아했던 사람만 장례식에 오라는 오베의 유언에 따라 장례식장은 마을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되면서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2016년 동명의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유럽 유수의 영화제에서 상을 받으며 화제가 되었던 영화입니다. <오베라는 남자>는 이웃 간의 작은 소통이 한 사람의 삶에 구원을 가져다주는 작은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적은 단지 이웃의 오지랴이 아니라 오베라는 남자가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기로 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이 영화는 팬데믹과 세대 간 갈등, 빈부격차 등으로 긴 단절의 터널을 건너고 있는 이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지금 고집불통 오베가 되어있는 건 아닐까요? 마음속에 저마다의 아픔을 숨기고 외로움에 불평불만이라는 옷을 입혀서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베가 죽으려고 할 때마다 찾아와서 괴롭히던 이웃들은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그에게 하느님이 주신 이 생애의 마지막 선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역시 쉽지 않겠지만 마음을 열고, 내 주변의 이웃이라는 선물을 받아안읍시다. 



## 눈물로 눈물 닦아주기 -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

김현 안셀모 신부 해양사목



‘고통’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고통이고 세계는 최악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오래전 이 사실을 깨쳤던 부처님께서서는 ‘이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라는 화두를 안고 멀고 험난한 고행

의 길을 떠나셨습니다.

삶 자체가 고통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참고 감내하는 것으로 고통을 극복하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그 자체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人(사람 인)’자가 알려주듯, 더불어 살아가야만 하는 본성을 지닌 존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행동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네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는 말처럼 타인의 고통을 자기 것으로 느끼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는 ‘연민’(Compassion)이라고 부릅니다.

‘Compassion’은 ‘함께’(com)와 ‘고통’(passion)이라는 뜻이 합쳐진 용어입니다. ‘연대’, ‘연민’, ‘측은지심’이라고도 번역하지만, 풀어서 쓰면 ‘함께-아파하기’라고도 옮길 수 있습니다. 죽은 라자로를 보며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타와 함께 아파하기 위해 눈물 흘리신 예수님(lacrimatus est Jesus, 루카 11,35 참조)의 마음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제각각 다양한 이유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인간이기에 그렇습니다. 타인이 고통의 늪에 빠져 신음하는데, 옆에서 눈을 돌리고 귀를 막는다고 해서 과연 혼자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을 못 본 척 외면하는 것은 새로운 고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들의 아픔과 슬픔에 함

께 공감하고 아파해야 할 것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였던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Gregorius Nazianzus, 329-390)의 별명은 ‘신학자’(theologos)였습니다. 위대한 신학자였기에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말장난에 빠지지 않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의 현존을 늘 뜨겁게 선포하며, 사회적 약자들의 존엄과 권리를 지켜내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 번호에 소개해 드리는 그의 작품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타인의 슬픔과 고통에 함께 아파하는 그레고리우스의 따뜻한 마음을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난에는 끔찍한 질병이 따라다닙니다. 그 병은 또 다른 악이고, 너무나 참혹해서 온갖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게다가 많은 이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고,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피하고 두려워하고 혐오하게 만듭니다. 자신들의 불행 때문에 거부당하고 미움받는다고 느끼는 것은 질병 자체보다 더 참혹합니다. 저는 그들의 비참함을 눈물 없이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연민이 생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눈물로 눈물을 없애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친구이자 가난한 이들의 친구인 여러분이 이 슬픔에 공감하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으로부터 자비의 선물을 받은 여러분이 바로 고통받는 이들의 산증인이 되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De pauperum amore 9. *





## 하늘나라로 간 팔레르모의 천사

“희망과 사랑의 선교회” 창설자인 평신도 선교사 비아조 콘테 형제가 지난 1월 13일, 향년 59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났다.

### 마피아의 피로 얼룩진 팔레르모

1963년 9월 16일 팔레르모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비아조 콘테 형제’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 또래 아이들처럼 쾌활하게 지내며 소비주의의 번영을 누리며 성장했다. 그가 스무 살이 된 1983년, 이 도시는 끔찍한 도시로 변하게 된다. 마피아 조직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던 것이다. 젊은 콘테는 불의, 실존적 공허, 가치의 부재 상황을 목격하게 된다.

### 26살, 모든 것을 버리고 숲으로 들어가다

“저는 진리, 진정한 자유, 참된 평화를 갈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26살의 콘테는 가진 모든 것을 나눠준 뒤 걸치고 있는 옷만 입을 채 자연으로 들어갔다. 이후 시칠리아의 숲에서 은수자로 생활하면서 삶의 참된 본질은 소유나 소비가 아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았다.

### 양치기와의 만남, 프란치스코 성인에 빠지다

그러던 어느 날 양치기 한 명이 자신의 양떼를 콘테에게 부탁한다. 콘테는 밤낮으로 양을 돌보며 하늘을 보는 법, 하느님을 갈망하는 법을 배웠다. 양치기의 아들은 그에게 성 프란치스코의 삶을 다룬 책을 선물한다. “저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의로운 인간 예수님을 점점 더 깊이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은 훗날 제 인생 전체를 바꾸도록 저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자유와 온전한 평화를 체험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듯했습니다.”

### 가장 가난한 이를 위해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하다


콘테는 아시시까지 도보 순례 중에 그는 모든 형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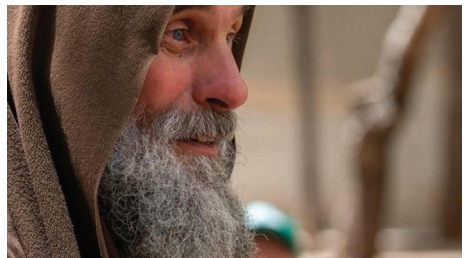
소외된 이들을 만났다. 그리고 그는 성 프란치스코의 무덤 앞에서 다음과 같이 결심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도시 팔레르모로 돌아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저의 사명이 팔레르모의 거리에서 시작되길 원하셨습니다.”

### 팔레르모로의 귀환, “희망과 사랑의 선교회” 창설

그는 팔레르모에 돌아와 기차역에서 노숙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을 도왔다. “저는 그들을 형제자매라 부르며 그들을 위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당시 팔레르모 대교구장님도 찾아왔습니다. 추기경님은 기차역에서 미사를 거행하러 와주셨습니다. 당시 미사를 잇을 수 없습니다.” 그 시기 난민들은 계속 늘어났고, 콘테는 낡고 유기된 건물 하나를 집 없는 가난한 이들을 맞이할 보금자리로 만들어야 했다. 1993년, 그렇게 “희망과 사랑의 선교회”가 창설됐다. “이는 하느님의 압도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선교회가 창설된 지 30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선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선교사로 살고자 하는 이들도 모여들고 있습니다.”

### 오늘날 계속되는 콘테 형제의 사명

비아조 콘테 형제의 사명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시칠리아 내에는 총 열 곳의 센터에서 6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머무르고 있고, 현재 300가구가 이상이 선교회의 지원을 받고 있다. 



## 정의평화위원회 활동과 소식

### +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약칭: 아세미)

1월 9일, 새해 인사를 나누며 아세미(19:30, 가톨릭센터 소극장)를 봉헌하였습니다. 1월 아세미에는 언론의 기사와 논평을 분석·비평해온 강유정 교수를 초대하여 '10.29 이태원 참사' 보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외신과 달리 과거 군사독재 시절처럼 질문하지 않고 취재 없이 받아쓰던 보도행태로 돌아간 우리 언론의 현재를 돌아보았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빨리 언론이 권력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 + 미얀마 민중과 연대하는 제99차 릴레이 캠페인

1월 8일(주일) 오전 11시, 1월 집중 릴레이 캠페인은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 104호에서 미얀마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참여로 진행되었습니다. 2021년 2월 1일 미얀마에서 군사쿠데타 발생과 동시에 일어난 민중항쟁이 2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유혈사태 없이 민중항쟁이 승리하도록 기도해주시십시오.

#### 미얀마 봄 혁명2년, 집회 및 행진(미얀마 민중과 함께하는 100차 캠페인)

일시: 2월5일(일) 11:00 / 부산역 광장(부산역-초량-부산역 행진)

※이후 매주 피켓팅은 중단하고 매달 첫 주일 집중집회 등을 이어갑니다.



### + 전국 정의평화위원회 실무자 모임

광주/마산/부산/서울/의정부/인천교구 정평위 실무자들이 1월 9일부터 10일까지 부산교구 사회사목센터에서 모였습니다. 지난해 각 교구의 활동과 평가를 공유하고 2023년 사업계획 속에서 하느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해나갈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 + 민주노총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 긴급규탄 성명

1월 18일(수) '공안통치의 시작인가! 민주노총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전국 82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연명의 긴급규탄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 + 인권시민사회단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시위지지 공동성명

전국시민사회단체는 1월 19일(목) 오전 9시, 서울 혜화역에서 정부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등이 벌이고 있는 전장연에 대한 탄압 중단과 장애인권리예산을 촉구하며 모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전장연의 지하철행동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 +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서명운동

1월 26일,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준)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반대하며,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핵폐기장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하는 기자회견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었습니다. 🌿



### 📢 한반도 평화, 소성리 미사

일시: 3월 6일(월) 14:00 (성주 소성리 천주교상항실)  
 집결: 사상기차역 앞(09:50 집결/출발 ~ 18:30 도착)  
 참가비: 없음(점심 개인 해결)  
 신청마감: 2월 27일까지(선착순 051-465-9508)  
 ※ 변동사항 발생시 신청자에 한하여 연락드립니다.

### 📢 10.29이태원참사 100일 부산추모대회

일시: 2월 5일(일) 오후 5시 장소: 서면태화  
 주최: 10.29 이태원참사 49일 추모  
 부산시민 준비위

## 후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12월 16일 ~ 2023년 1월 16일)

강운자 강인순 강정웅신부 고은영 권성일 권중희(2) 김경란 김경석 김경숙 김광숙 김선영 김인한신부 김종경  
 김진호신부 김흥기 나경문 류창훈신부 류형숙 맹정은 박위옥 박종민신부 박준철 배미희 법무법인민심 법무법  
 인부산 변지혜 서경혜 손석호 송석희 신정금 심서경 아리 우무섭 유상우신부 유한이 윤영훈 윤용웅 이미영 이  
 봉룡 이성애 이소라 이영복 이우형 이윤희 이정기 이형규신부 장원창 전나미 전동묵신부 전윤희 전태일 정성  
 호신부 정중태 정호신부 조계환 조동기 조동성신부 조영심 주님의축복을 차광준신부 최상국 최우인 최은경 최  
 재경 최혁신부 하민진 하희설 허채현 황수엽 황진 익명 | 원고 후원 | 강인구신부 고은영 김진호신부 김현신부

## 정의평화위원회를 후원(자동이체 신청)해주십시오.

### 정의평화위원회 후원계좌 .....

- 농협 301-0465-9508-21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정평위)
- 부산은행 113-2000-8639-05

>> 보내주신 후원금은 정의평화위원회의 소중한 사업비로 사용됩니다.

>> 정의평화위원회에 후원인 가운데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거나 신규로 후원하신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 해주십시오. ☎051-465-9508

## + 정의평화위원회는

1967년 교황 바오로 6세의 사도적 서한에 근거하여 하느님 백성들이 오늘 그들의 역할을 충분히 깨닫고 가난한 나라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국제적인 사회정의를 권장하기 위한 교회기구로 설립되었습니다. 정의평화위원회는 복음과 사회교리의 가르침에 따라 인간 존엄성과 창조질서 보전, 생명존중과 정의·평화 구현을 위하여 힘씁니다.



2023

2월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새 사제들과 함께



"나의 모든 이야기"

2023.02.13.(월) 19:30 / 가톨릭센터 소극장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한반도 전쟁 위기의 구조적 원인과 해법



[한반도 평화 초청 특강]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  
전 개성공업지구지원센터 이사장

2023. 2. 18(토) 14시  
가톨릭센터 소극장

무료 / 참가신청 <https://url.kr/an51qg>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전화 051-465-9508 주소 48968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기 가톨릭센터 5층

이메일 [busanjustice@naver.com](mailto:busanjustice@naver.com) 홈페이지 [busanjustice.pbcbbs.co.kr](http://busanjustice.pbcbbs.co.kr)